

대행 스님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영원한 오늘일세

질문 해마다 초파일을 맞이하여 밝은 연등도 밝히고 있지만 선법가 가사에도 있듯이 "부처님 오신 날 영원한 오늘일세"라는 뜻이 잘 와닿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우리가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어떠한 생각으로 이날까지 살아왔던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꺼지지 않도록 하고 왔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일 년을 하루로 축소할 수 없다면 하루를 일 초로 축소할 수 없는, 영원한 오늘이라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우리 마음과 말과 뜻을 한 번 더 다져 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법회를 하는데, 석사나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부부들과 천주교인, 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법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중 하나 기억나는 것이, 법회 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생명은 있었으니 초 초마다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부활절이지 달리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고, 인등을 켜는 것이고, 또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의 초파일이나, 다가올 초파일이나, 내년의 초파일이나, 삼천 년 전 오늘이나 똑같은, 영원한 오늘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면 그 나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그 배움의 고마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두 이 마음을 조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정해 놓았겠지만 부처님은 나신 날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 자체는 따로 생일도 없고, 따로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우주 세계가, 전체를 비춰볼 때 여러분이 만 명이라면 그 만 명이 부처님이 다 되니깐,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항상 부처님이 결부돼서 있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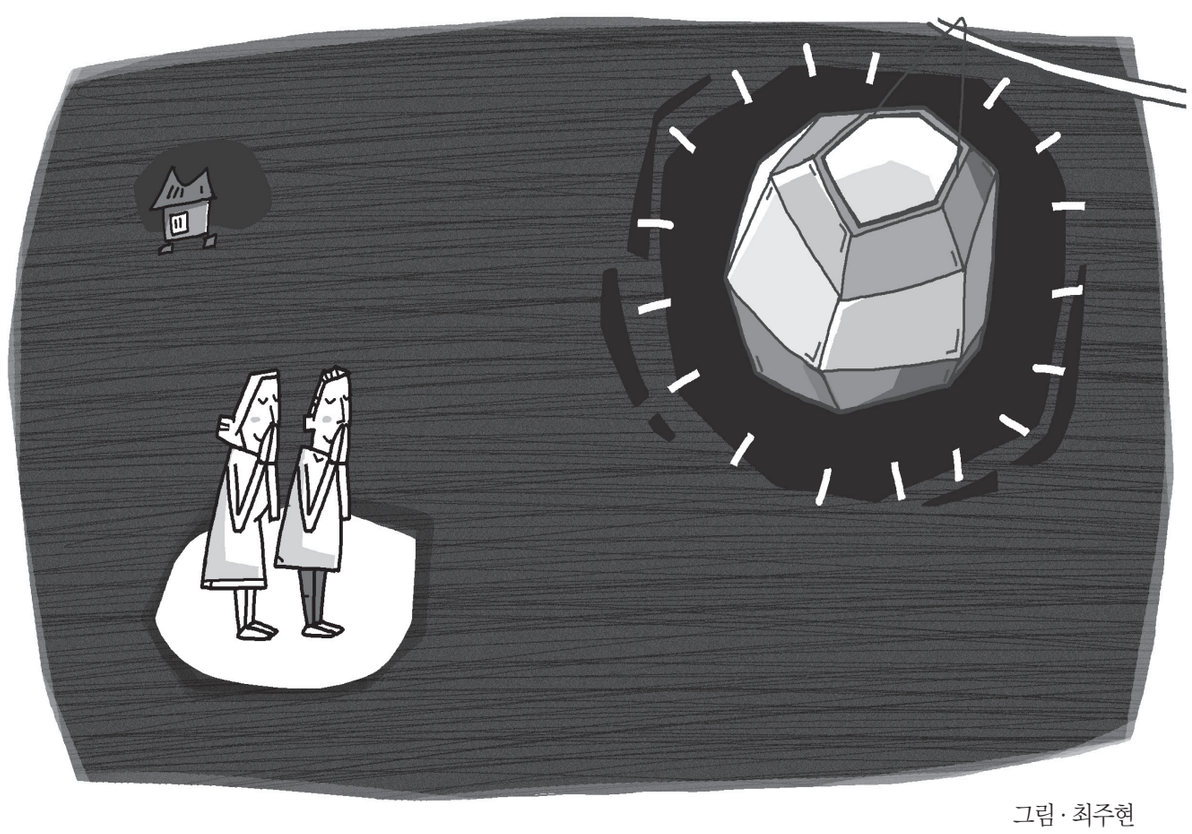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한마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 우리가 같이 통하면서 같이 움죽거리면서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마음이라는 것은 전체 우주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종교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진리로서 일체와 더불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것이 없죠.

그렇듯이 우리들의 일상이 그대로 불법인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며 움직이는 것이 참선이며, 그 경계가 모두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일 년에 한 번 오는 사월초파일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내가 있으니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적이 없습니다. 열반이라 함은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항상 여여함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살아 있으면서 열반에 드는 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인공 놓치지 않으려면

질문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주인공이라는 반야줄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놓치지 않을 수 있을는지요.

답변 아, 놓치고 안 놓치고가 어딨습니까. 아니, 자나 깨나 그냥 자기 주인공, 그냥 주인공이지 놓칠 게 어딨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얕은 생각일 뿐이에요. 놓쳤다 안 놓쳤다 이런 생각일 뿐이라고요. 본래 그냥 나를 이끌어 가고 줄창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간사해서 '아이구! 요 줄을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 이거는 군더더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맘 턱 놓고 '내가 하나하나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사는 것이 그대로 주인공에서 굴리는 거로구나. 그냥 살게 하는 거로구나.' 하면은 바로 제 나무에서 제 뿌릴 믿는 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제 나무에서 제 뿌릴 믿어야 모든 것을 에너지로 올려보내고 그러죠. 나무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 열매가 제 나무에서 무르익고 그래야만이 그 맛이, 과일 하나에서도 만 가지 맛이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붙들고 꼭 쥐고선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자기 개별적인 생각뿐입니다. 본래 놓치고 안 놓치고가 없어요. 본래 그냥, 그냥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 반야줄이라는 게 자기 마음줄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재사를 지내거나 천도를 지내거나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반야재지, 거북상스럽게 천도재니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반야재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사를 지내거나 이래도 감사재고, 모든 게 감사한 줄 알아야, 모두 감사한 줄을 알고 살아야 충분히 주어집니다, 나한테. 감사한 줄 모르고 살면은 충분히 주어지질 않아요. 그건 정말입니다.

우리가 단 몇 시간도 물 없으면 못 살고 불이 없어도 못 살고 바람 공기가 없어도 못 살고 흙이 없어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줄을 모르니….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왜? 내가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내가 나와 보니까 모두 있더라. 내 스승이에요, 다. 움죽거리는 것들, 보이는 것들, 모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내가 그걸 보지 않았으면 배울 수가 없을 텐데 모두 있어 줬으니까 내가 알고 배우고 모두, 자연의 세계라든가 모두 충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 한 쪼가리도 내 스승 아닌 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둘 아니게 살아라 이겁니다,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산다면 우주도 아주 세고 버리게 흔한 게 우주예요. 흔한 게 우리 몸뚱이 하나 개별적인 혹성이고 말입니다. 혹성이라고 그래도 되죠. 그러나 한 은하계가 살듯이 우리 이 몸속에는 은하계의 샛별처럼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다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에 이 모두 수레가 돌듯이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다 직결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린 개개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보이지 않으면은 자기가 말한 것도 남이 못 들었으니까 다 아주 모르려니 이렇게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를 이루면은 모두 전체가 다 통신이 된단 얘기죠. 하나서부터 열까지 말입니다.

내가 왜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지

질문 제가 몇 년째 공부를 해 왔는데 요즘 갑자기 '내가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

☞ A30면으로 계속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체법, 석일두, 석혜천, 석혜암, 석진공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 교육원장 석남산 / 기획원장 석담허 /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 의전원장 석법도 / 어산장 석도암 /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 총무부장 석성덕 / 감찰부장 석성현 /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 사회부장 석자광 / 사회부장 석성우 / 조직부장 석성희
종무부장 석법민 / 문화부장 석성원 / 포교부장 석보현 /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 지원국장 석해인 / 봉사국장 석성운 /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 포교국장 석성원 / 의전국장 석균중 / 수행국장 석성오
종무국장 석성안 / 문화국장 석원종 / 의식국장 석성혜 / 사서국장 석성오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 부장 석지현 /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현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장 학산(이종길) /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 총무 대각심(김경숙) / 임원 혜명심(박현숙) / 임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장 묘각(이재인) / 부원장 혜정(이영숙) / 국장 불심화(정형숙) / 무용 무애심(박순애) / 연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 울산원장 법광 / 종무원장 성종 / 법사원장 목암
홍보부장 원명 / 부산부장 혜성 / 경기부장 자운 / 전남부장 혜명
구미부장 혜진 / 대구부장 혜련 / 청주부장 혜원 /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 사업국장 종현 / 포교국장 덕운 / 종무국장 도연 / 서울국장 명덕
포교국장 청운 / 통영국장 덕인 / 포교국장 혜림 / 봉화국장 혜정 / 화순국장 보정
삼척국장 정허 / 영천국장 원명 / 통역국장 정연 / 포교국장 혜경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전화 02)303-5612